

## 물관리 정책 심포지움의 토론내용

<편집부>

### □ 21세기 물 관리정책 대안

- 다목적댐 기능의 전환
- 강력한 물 수요관리정책 추진
- 수질오염 예방정책개발
- 수질오염정화기술 개발
- 유역관리 체계 구축

지난 여름 우리의 물관리 정책에 관한 두 개의 심포지움이 열렸다. 지난 7월 13일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와 문화일보사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 정책심포지움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정책 그 과제와 방향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8월 25일에는 새정치국민회의 환경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현대환경연구원과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서 후원한 새로운 천년의 물관리 방향설정을 위한 심포지움 “21세기의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위한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환경부장관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가지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새로운 천년의 물관리 방향설정을 위한 심포지움에서는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20세기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과 심명필(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우리나라의 물수급 전망과 대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발표를 가졌다. 지정토론자들은 곽결호(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이명섭(한국수자원공사 조사기획처장), 김 승(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시진(경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정희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부장), 김혜애(녹색연합 대안사회부 국장) 등이

참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 정책심포지움에서는 전상호(강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 곽중운(위테크 기술연구소 소장)의 ‘하수의 화학적 처리를 통한 원수수질개선’ 그리고 윤제용(서울대 응용화학부 교수)의 ‘국내 정수장 수질보고자료 분석을 통한 먹는물 수질관리 개선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지정토론자들은 문정호(환경부 수질정책과장), 윤태일(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석현(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지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그럼 여기서 환경부 수질보전국장과 수질정책과장의 발표내용을 간추려 봄으로써 정부의 수질관련

# 리포트 - I

정책 방향의 대안을 생각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면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수량, 수질관리정책으로 수질, 오염예방정책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발표 한 광결호(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의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향후 물 문제의 양상

- 수량부족, 수질악화라는 두가지 물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심각하게 대두
- 상류지역 개발속과 하류지역 맑은물 욕구가 상·하류지역간 갈등으로 전개
- 댐건설을 둘러싼 환경파괴, 수리권분배에 관한 논의가 더욱 첨예화

## □ 현행 물 관리정책 대안

- 수량확보에 주축을 둔 60~70년대 개발시대의 법제와 행정체계
- 협력과 협조보다는 대립과 갈등관계에 있는 여러 정부부처에 물 관리업무를 분장
- 전문가들조차도 종합적이기 보다는 어느 일방의 논리에 편승하여 물 관리제도에 관한 입장 주장

## □ 21세기 물 관리정책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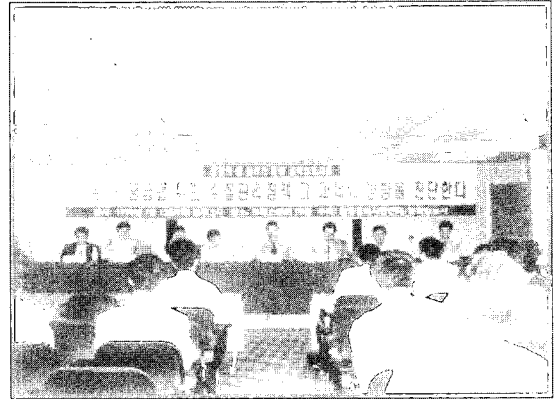
- 다목적댐 기능의 전환
  - 갈수기 하천유지수량 증대를 위한 댐건설, 기존댐 운영방식 변경
- 강력한 물 수요관리정책 추진
  - 취수제한, 중수도 의무화, 물값 현실화, 노후 수도관 개선 등
- 수질오염 예방정책개발
  -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 환경친화적인 농업 및 하천관리
- 수질오염정화기술 개발

- 자연정화 기능을 이용한 발생원별 오·폐수 처리
- 질소·인 등 부영양화물질 처리
-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 ○ 유역관리 체계 구축

- 행정구역단위의 물관리조직을 수계단위, 유역단위의 물관리조직으로 개편 필요
-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필요

이어 문정호(환경부 수질정책과장)의 토론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정부는 그동안 맑은물 공급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환경훼손은 잠깐이지만 보전과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 원수 수질과 정수후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수질관리정책은 제도적 측면과 더불어 기술, 재원, 인력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맑은 물 공급정책은 몇가지. 측면에서 반성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상수원 원수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능동적인 접근 미흡,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부재, BOD 중심의 관리,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

# 리포트 - I

적인 접근 미흡, 토지이용과 산업정책 등 관련 정책간의 조정 미흡, 대기·수질·하천생태·토양·폐기물 등 관련분야간 연계성 부족, 하천 관리주체의 다원화, 수량과 수질의 이원적·관리, 부족한 투자재원과 전문인력의 부족, 기술개발과 기초자료 조사·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정수후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리 측면을 살펴보면, 정수장 수질관리의 전문성 미흡과 수질검사 항목의 확대 필요성, 노후 수도관의 조기 개체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대책 부재, 개별 수용가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수질관리정책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계별 대책을 2년여에 걸친 과학적인 오염원 기초조사와 수질예측 모델링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대책의 병행, 농도중심관리에서 총량관리 제도의 도입,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와 상·하류의 틀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질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하천변 일정거리에 수변녹역을 설정하여 토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수변녹지대를 조성하여 오염물질을 사전에 걸러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비점오염물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도시지역 우수지와 농경배수 침전지 조성 등 비점오염물질의 효율적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축산분뇨로부터 비점형태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퇴비사, 가축운동장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법제화하고, 농경지 화학비교,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농림부와 협조하여 작물별 적정 시비량을 조사, 천적이용농법, 오리농법 등 무공해 농법개발·보급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하천부지에서는 화학비료사용을 금지하고 유기영양을 조건으로 하천부지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질소·인 저감을 위하여 하수고도처리시설의 확충, 처리 기준의 강화는 물론 하천으로 유입된 후의 질소·인 저감을 위하여 수초대 조성, 인공부도의 설치,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호소내 퇴적물에 의한 내생부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이 적기에 조달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수처리기술의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문제와 공공수역에서의 수질기준 조정문제는 환경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연구중으로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세미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정수과정 및 정수 처리후 공급과정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수처리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수질검사항목과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물절약을 유도함은 물론 노후수도관 개량 등을 위한 투자재원확보 대책, 수도물 공급체계의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環境保全**